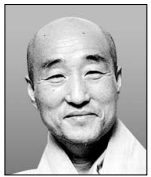


일주문



'군승의 날' 기념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제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749-8646



만화당 희천대선사 22주기 추모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2월 7일 오전 11시 적광전에서 만화당 희천대선사 22주기 추모기재를 봉행한다.(033)332-6664



'한일불교문화학술상' 수상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법혜 스님은 최근 한일불교문화위원회가 시상하는 '한일불교문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들꽃' 주제 조각전 개최
이점원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대백화점 부산점 현대아트갤러리에서 '들꽃'을 주제로 조각전을 개최한다.



동국대 최고위과정 특강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11월 23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제4대 광주·전남 포교사단장에
백남용 포교사는 11월 19일 광주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제4대 광주·전남 포교사단장에 선출됐다.



'청강월' 대표이사 취임
불자 기업인 엄일석씨는 11월 22일 (주)청강월 본사를 광주 금남로로 옮기고 불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대 대표이사 취임행사를 열었다.



2005년 불기결의 밤
한국불교기자협회 여태동 회장은 12월 6일 오후 7시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2005년 불기결의 밤을 개최한다.(02)733-1608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등수상
불교방송(BBS) 강현정 PD는 최근 방송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및 PD연합회의 '이달의 PD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속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 김형중 사무국장이 신부 류효정 씨를 맞아 12월 11일 낮 12시 대구 구빈예식장 5층 별관 특실에서 화축을 밝힌다. 010-6705-0003

“집착 않는 지혜 수행 강조돼야”

“오늘날 불교수행에서는 선(禪) 수행만이 강조된 나머지 지혜의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작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불교’, ‘생활 속의 불교’를 널리 전파해온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중 교수가 이번학기를 끝으로 정든 학교를 떠난다. 이를 기념해 후배와 동료들이 11월 22일 동국대 다량관제나실에서 퇴임 기념강연을 마련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들과 동문, 후학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퇴임 기념강연에서 권 교수가 택한 강연 주제는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密多)’였다.



동국대 권기중 교수 정년퇴임...22일 '고별강연' '반야바라밀다' 주제...동문·후학 한자리

권 교수는 “선종의 중심 과제는 선(禪), 즉 6바라밀다 중의 선정바라밀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반야를 중시하는 반야부 경전이다. 또 수행에 있어서는 선 수행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여섯 가지 바라

밀다 가운데 다섯 가지(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는 반야바라밀다가 이끌어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반야바라밀다”라며 “반야바라밀다는 무분별지(無分別智)이고, 그 실천은 ‘집착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교수의 일문일답.
▲퇴임하는 감회는?
—아쉬움이 더 크다. 한창 학문

적인 성과를 내야 할 40~50대에 학교 보직을 많이 맡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반야바라밀다는 퇴임강연의 주제로 정한 이유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야지혜라는 사실을 불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기회에 알리고 싶었다.
▲쉬운 강연으로 유명한데...
—법문이나 강연은 우리 삶의 문제와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과 유리된 불교가 되고 만다. 쉬운 강연의 핵심은 쉬운 용어가 아니라 청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데 있다.
▲한국불교학의 문제라면?
—학자층이 두렵지 못하다는 것이

다. 연구자가 많지 않다보니 불교학 연구의 폭이 넓지 못하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불교학을 전공하고 나서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교직은 제한돼 있고, 연구직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학금을 쥐어 불교학을 전공하게끔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제3회 대원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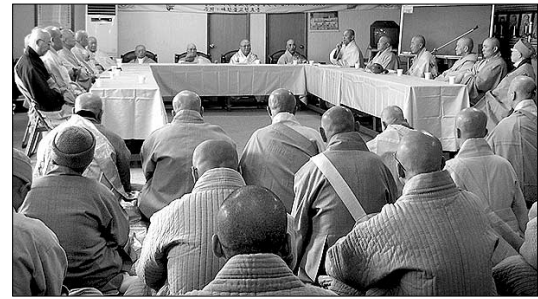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정한 제3회 대원상 시상식이 11월 25일 서울 다보원 대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무진장 스님,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대표 등이 대원상을 받았다. 이날 진흥원은 공동수상자인 월운 스님과 무진장 스님에게 각 10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공불련 회장단, 지관 스님 예방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단은 1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각 부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윤갑 공불련 회장(관세청장)과 김중양 고문(행정연구원장), 송도근 수석부회장(건설교통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원효종 금수사서 정기 중앙총회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고산)은 11월 22일 원효종 총본산 부산 금수사에서 100여명의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정기 중앙총회 및 종도대회를 개최했다. 원효종은 종무보고, 신년하례회 계획, 기타현안, 자유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를 통해 대승 화합 종단으로 거듭 나자는 결의를 다졌다.

금중 스님 초청 강연회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의 저자 금중 스님 초청 강연회가 11월 22일 부산 영광도사에서 열렸다. 백여 명의 독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중 스님은 출가 수행 등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일상적인 얘기들로 강연을 진행했다. 금중 스님은 “책 속에 고뇌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계불교 법왕청 오존불 점안법회



(재)세계불교법왕청 오존불 점안법회가 11월 20일 화성시 법왕청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관음정사 조실 혜룡 스님, 법화종 前 총무원장 대호 스님, 법왕청 이준영 이사장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준영 이사장은 “일불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오존불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도회관 건립이 목표”

대구 동화사 3대 신도회장 허석구씨 취임

“불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동화사 제3대 신도회장에 취임하는 허석구(51·사진)회장은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기업경쟁으로 다른 불자들에게 불자가 됐다”는 허석구 회장은 특수 섬유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해일 대표이사로서 한국과 중국에 합작회사를 경영하는 중견 기업인이다. 현재 국제 라이온스클럽 355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대구시 상공회의소 상공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올해의 재가불자상’ 불무 대표 김유신씨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김유신 불무 대표(사진)가 선정됐다.
‘올해의 재가불자상’ 선정위원회는 ‘불교 문화포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전문적인 문화기획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노력해 온 김유신 대표를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11월 23일 발표했다.
2001년부터 불교문화기획사 불무를 운영해온 김 대표는 “너무 과분한 상이 오히려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앞으로도 불교 문화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봉선사 문도 제위께 호소합니다.

본사 철안 주지스님이 사패산 터널 공사 보상비 전용 혐의로 고발되어 국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인접 지역 주민과 재가 불자들의 비난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각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연일 이 일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에 대해 보도를 하여 본사는 물론 교단마저도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명색이 본사 주지스님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끝내 법정에 서야 하다면, 이 어찌 주지 본인만의 치욕이었습니까? 이러한 소양의 사람을 교구의 수장으로 모신 우리 문도들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주지스님께서도 사과문을 내면서 “12인 운영위원의 공론을 통해서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전 문도들에게 전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행입니다. 더구나 불교도의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는 문도내의 비판이 일자, 주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의 준동으로 호도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도회의에서 우리는 당연히 사회적 물의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서 주지를 사퇴하도록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래야 봉선사 원초문도로서 최소한의 양심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시 임시 문도총회 소집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개인이나 계파간의 유, 불리가 아니라 사안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어 문도차원에서 제대로 척결해야만이 우리가 옛 어른들을 기리는 후손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권명합니다.

1. 본사 주지 철안스님은 사회적 물의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속히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
1. 모든 환경단체들에게 그 명예를 훼손함에 대해 공중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과하여야 한다.
1. 불교도로서 교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 종도를 욕되게 한점에 대해 교단의 모든 대중에게 참회 하여야 한다.
1. 이후의 사법적,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문도대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2005(2549)년 11월 24일

봉선사 젊은승가회 화광